

전주-제주 교류전시 '매일 매일 내일' 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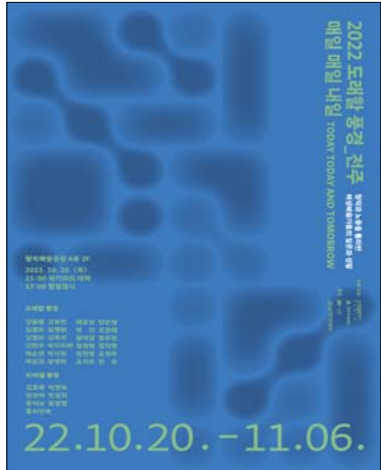
전주문화재단, 20일~11월 6일까지 팔복예술공장에서 '여성 예술가들의 창작과 노동' 주제 개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10월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팔복예술공장 2층 전시실에서 '도래할 풍경 2022 - 매일 매일 내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우수기획창작활동지원 사업에 선정된 상상창고 숲(대표 박진희)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창작과 노동을 둘러싼 여성 예술가들의 질문과 성찰'을 주제로 전주를 포함해 제주, 서울, 경기, 부산 등 다양한 지역 작가의 회화, 설치, 사진, 영상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이에 따르면 전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도래할 풍경'에서는 김슬생, 고보연, 김경화, 김현수, 박소현, 정하영, 조영주 등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24명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며, '이여길 풍경'에서는 한국 여성 미술 1세대 여성예술가이자 기획자 김중례, 방정아, 임정희 등 7인의 아카이브 영상이 전시된다.

사회 변혁의 주제로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을 깨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21년 '도래할 풍경'이 기획됐다. '도래할 풍경 2022 - 매일 매일 내일' 전에서는 창작과 노동을 둘러싼 여성 예술가들의 질문과 성찰의 장으로 펼쳐진다.



도래할 풍경 2022 - 매일 매일 내일 전시회 포스터

전이 기획됐다. '도래할 풍경 2022 - 매일 매일 내일' 전에서는 창작과 노동을 둘러싼 여성 예술가들의 질문과 성찰의 장으로 펼쳐진다.

한편 20일 15시에는 개막식 식전 행사로 '여성예술가, 창작과 노동'이라는 주제 아래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 김연주(문화공간 양 기획자), 이정주(큐레이터) 참여 작가가 함께할 예정이다. 17시에는 개막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전주문화재단 김정경 문예진흥팀장은 "지역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전주 지역 예술가들 타지역 예술계에 알리고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교감과 연대를 일구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간 예술 교류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며, "8명의 전주 지역 작가와 전국의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과 관람을 바란다"고 전했다.

도래할 풍경 전시기획위원회 이정주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에서는 이여길 풍경을 통해 한국 여성주의 미술이 변모해온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며 "전시를 통해 갖바 없는 느슨한 연대로 모두의 안녕한 내일을 상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 조갑녀 살풀이명무관 특별공연

16일 故조갑녀 명인 잇는 전통춤 · 남원여성 원로 농악인 공연 등 진행

남원 조갑녀 살풀이명무관에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살풀이춤의 대가로 이름 높았던 故조갑녀 명인을 잇는 전통 춤사위부터 남원여성 원로 농악인들의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소명 세대를 아우르며'로, 남원의 역사와 함께해온 명무 故조갑녀 춤을 소중히 문화유산으로 전승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故조갑녀 명인은 남원에서 태어나 제1회 춘향제인 1931년부터 1941년까지 매년 승무와 검무, 살풀이를 취 명무(名舞)라는 칭호를 받은 남원 권번의 마지막 예인이다.

이번 공연의 첫 무대는 조갑녀전통춤보존회 대표이자 전수교육 조교인 정명희 교수의 대표작인 작품으로, 오랜 세월동안 행사의 막을 열었던 춘향제 역사를 지닌 '승무'가 펼쳐지며, 이외에도 남원검무, 율하정인, 수간춤, 살풀이춤, 소고춤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또한 최고의 전통춤에 남원여성 원로 농악인들의 농악과 팔산대연희단의 특별초청으로 신명나는 즐거움까지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희 교수의 '조갑녀 전통춤'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목보적인 살풀이춤으로 소중히 지키고 전승해야 할 문화적 가치로 활용된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해 대중과 소통할 것"이라고 이번 공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갑녀살풀이명무관에는 명인이 사용한 유품과 공연사진, 영상 등 소중한 자료가 전시되어 어느 때고 남원을 방문하면 조갑녀전통춤과 관련된 기록을 만나 볼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리산의 바람'

내달 13일까지 남원의료원 야외공원에서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전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 1개월 간 남원의료원 야외공원(연못에서 전북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리산의 바람' (이하 지리산의 바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남원의료원의

의료진과 환우, 보호자의 휴식 공간을 미술과 삶이 소통·교감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한국메세나협회 공모사업에 선정, 재단이 주관하고 국립민속국악원, 남원의료원, 전북은행, (주)하이트진로에서 후원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이경윤 대표이사는 "한 달간 진행되는 '지리산의 바람'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이곳을 찾는 의료진과 환우, 보호자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사람과 사람이 예술을 통해 어우러져 치유되는 하나의 사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명인 · 명창 한마당 '제8회 동편제마을 국악거리축제'

남원 비전마을 송흥록 박초월 생가 · 정자마루 일원에서 15일 개최

남원시 비전마을 송흥록 박초월 생가와 정자마루 일원에서는 10월 15일에 2022 예술마을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8회 동편제마을 국악거리축제(이하 국악축제)가 열린다.

축제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주관하며, 전라북도과 남원시가 후원하는 국악축제는 201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8회를 맞았으며, 동편제 댕지리에서 시작되어 최정삼급 명인·명창들이 찾은 국악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가장 송흥록 박초월 생가에서 열리는 국악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소리열린 슈퍼콘서트'는 관소리 명창으로서 탁월한 전수능력과 전수활동으로 관소리(춘향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받은 안숙선,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전승교육사 김영임,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이춘희,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부

수석의 서진희가 출연한다.

공연은 서진희를 시작으로 각 명창들의 단독 공연으로 진행되며, 이후 모든 출연진이 무대에서 함께 노래 부르는 '소리열린 슈퍼콘서트'만의 대표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비전마을 정자마루에서는 월드뮤직그룹 김주홍과 노름마치, 딸(TAAL)의 공연으로 신선한 바람과 함께 한가로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콘서트로, 한국전통음악의 틀을 유지하며 동시대 사람들과 소통하는 음악을 지향하는 김주홍과 노름마치, 지구의 음악을 들려주는 딸의 출연으로 정자마루 내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될 예정이다.

공연은 사전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며, 관람은 남원시 문화예술과(063-620-6167)나 예술마을 사무국(02-966-6560)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 시·군 여성회관장 협의회 상생발전 워크숍 진행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 이하 센터)는 13일 전라북도 시·군 여성회관장 협의회 상생발전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내 여성회관 교육 담당 및 담당자 30여명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은 서울 지역의 선진 여성연구·교육기관인 '서울여성가족재단'과 국내 최대 여성창업 지원 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을 방문해 지역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발전 방향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르면 작년 12월 공식 개관한 '스페이스 살림'은 55년간 미군기지로 사용됐던 대방동 캠프 그래픽을 재탄생시킨 장소로 돌봄과 창업 공간이 한 곳에 공존함으로써 여성, 가족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문화복합공간



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여성 스타트업의 성장공간으로 이를 부여하며 앞으로 지역의 다양한 공간들의 역할과 지향점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특히 각 기관 담당자들의 트렌디한 프로그램 소개와 더불어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수행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등 해당 지역민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과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전정희 센터장은 "서울시의 혁신적 시도가 여성 창업공간의 선진모델로 전국에 소개되고 있다"며 "오늘 벤치마킹이 전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여성회관의 발전적 대안을 찾고 트렌드를 반영한 변화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27일까지 내장산생태탐방원 - 예술로 음악회

전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13~27일 3주 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정음 내장산생태탐방원 일원에서 참여 기업인 국립공립공단 내장산생태탐방원과 참여예술인들의 협연 공연 '예술로 음악회'를 진행한다.



이번 '예술로 음악회'는 참여 기업에는 공연과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고, 참여 예술인에게

는 음악과 전시 등의 재능을 펼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특히 내장산생태탐방원의 위계이션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생태탐방원을 이용하는 다양한 기업의 연수 및 휴식 일정에 맞춰 탐방원의 매력을 시각적으로 강화해 더욱 편안한 휴식을 탐방객 및 투숙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리더 예술인 김은정은 "예술로 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들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마련하고 재능을 펼칠 기회의 장이 주어져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내장산생태탐방원 환경동원장은 "정음 내장산생태탐방원에서 펼쳐지는 예술로 음악회를 통해 많은 도민과 내장산 탐방객들에게 뜻깊은 가을 행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태권도원 운영, 코로나19 이전 목표로 빠른 회복세 보여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 이하 재단)은 태권스케이, 태권투어 복합체합시실 운영 등 시설 및 콘텐츠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방문객과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태권도원 운영 활성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태권도원의 방문객 수는 지난 9월말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6.2% 성장세를 보이며 17만명에 달하는 고객이 태권도원을 방문한 매출액도 28억으로 100%의 성장세를 보이며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13만명의 방문객과 매출액도 14

억에 그친데 대비 22년 일상복귀를 경영목표로 재단 전 임직원이 위드코로나에 대비 피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인한 많은 생활의 변화로 안전하고 청정한 신규 관광객에 대한 국내 수요가 늘며 태권도 체험 관광이라는 차별화된 상품이 인기를 끌며 숙박객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유로 꼽힌다. 또한 국내 관광수요의 질적 개선 움직임에 따라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신규 태권도복합체합시실의 본격 운영이 큰 역할을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기념 · 학생서예공모 수상작 전시 · 시상식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2022 기념공모전 및 학생서예공모전 수상작 전시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전시되는 수상작품은 716점이다. 조직위에 따르면 서예비엔날레가 개최되는 해에 함께 실시하던 기념공모전을 확대 실시해 한국사단을 이끌 역량 있는 작가 발굴에 힘써 한국 서단의 서예 꿈나무 육성을 위한 '2022 학생서예공모전'을 공모했다.

기념공모전 수상작 156점과 학생서예공모전 수상작 560점이 14~27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시실에서 전시되며, 시상식은 15일 오후 3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0갤러리에서 진행된다.

기념공모전 대상에는 운영석씨(1971년생·부산)의 전작 작품 하늘을 담은 너의 가슴이, 우수상에는 정선숙씨(1959년생·서울)의 한글 작품 '벼슬을 저마다 흥·면', 안순옥씨(1954년생·전북)의 문인화작품 '묵린(저녁기도)', 홍영택씨(1972년생·충북)의 한자작품 '해신생시 즉시(黃海先生詩 即事)'가 선정됐다.

학생서예공모전 고등부 금상에는 김동현(18세, 경남 양산고 2년) 학생이 해서로 쓴 작품이, 중등부 금상에는 문초연(정음 정일중 2년) 학생이 그린 해바라기 작품이, 초등부 금상에는 박기영(충남 합도초 6년) 학생의 한글 작품이 선정됐다. /정은성 기자

소리문화전당, 내년 상반기 정기대관 이메일 접수... 25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오는 25일까지 2023년 상반기 정기대관을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상시설은 모악당, 연지홀, 명인홀, 야외공연장 등 공연장 4개소와, 갤러리 S·O·R·I 등 전시장 4개소, 국제회의장 등이다.

공연장과 전시장 국제회의장 대관 가능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대관 가능일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야외공연장은 4월 1일부터 협의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구체적인 대관 가능 일정은 전당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홈페이지 대관안내에서 대관신청서류를 내려 받은 후 이메일(kosac7842@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대관 승인은 심의 결정을 거친 후 오는 11월 11일 전당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전화(063-270-7842)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